

Nichiren Shoshu Head Temple

타이세키지



5

타이세키지 경내 안내도(大石寺境内案内図)

- ㉓ 봉안당(奉安堂)
- ㉔ 오중탑(五重塔)
- ㉕ 객전(客殿)
- ㉖ 무쓰보(六壺)
- ㉗ 어영당(御影堂)
- ㉘ 중앙탑중(中央塔中)
- ㉙ 동탑중(東塔中)
- ㉚ 서탑중(西塔中)
- ㉛ 삼문(三門)
- ㉜ 총문(總門)
- ㉝ 타이세키지 묘지(墓地)
- ㉞ 광포의 광장

- 1 정련방(淨蓮坊)
- 2 이경방(理境坊)
- 3 구성방(久成坊)
- 4 백관방(百貫坊)
- 5 연동방(蓮東坊)
- 6 적일방(寂日坊)
- 7 본주방(本住坊)
- 8 관행방(觀行坊)
- 9 본경방(本境坊)
- 10 연성방(蓮成坊)
- 11 요성방(了性坊)
- 12 남지방(南之坊)
- 13 묘천방(妙泉坊)
- 14 묘주방(妙住坊)
- 15 원수방(遠壽坊)
- 16 묘원방(妙遠坊)
- 17 보은방(報恩坊)
- 18 원신방(遠信坊)
- 19 동지방(東之坊)
- 20 본종방(本種坊)
- 21 석지방(石之坊) [상창당(常唱堂)]
- 22 설산방(雪山坊)
- 23 총일방(總一坊)
- 24 총이방(總二坊)
- 25 광포방(廣布坊)
- 26 상래방(常來坊)
- 27 상등방(常燈坊)
- 28 묘호방(妙護坊)
- 29 법호방(法護坊)
- 30 상락방(常樂坊)

- 1 법당(法堂)
- 2 어보장(御寶藏)
- 3 대서원(大書院)
- 4 귀문(鬼門)
- 5 불개문(不開門)
- 6 대강당(大講堂)
- 7 중강당(中講堂)
- 8 대방(大坊) [내사부(內事部)]
- 9 종무원(宗務院)
- 10 이문(裏門)
- 11 이천문(二天門)
- 12 고루(鼓樓)
- 13 종루(鐘樓)
- 14 후지미암(富士見庵)
- 15 연장방(蓮藏坊)
- 16 다보장(多寶藏)
- 17 연엽암(蓮葉庵)
- 18 등산사무소(登山事務所)
- 19 경장(經藏)
- 20 십이각당(十二角堂)
- 21 보물전(寶物殿)
- 22 대납골당(大納骨堂)
- 23 육만탑(六萬塔)
- 24 삼사탑(三師塔)·역대상인 묘지
- 25 전례원(典禮院) [묘지사무소]
- 26 어탑교(御塔橋)
- 27 후지미교(富士見橋)
- 28 대석교(大石橋)
- 29 용문교(龍門橋)
- 30 법상원(法祥園)
- 31 도쿄히가미네(常燈峰)
- 32 도노하라 그라운드
- 33 제1터미널
- 34 제2터미널(버스·택시)
- 35 우루이가와(潤井川)



타이세키지(大石寺) 연기(緣起)

당산(當山)은 타호후지다이니치렌게잔(多寶富士大日蓮華山) 타이세키지(大石寺)라고 칭하며 쇼오(正應) 3년(1290) 10월 12일 중조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법적(法嫡) 제2조 바쿠렌아사리(白蓮阿闍梨) 닛코상인(日興上人)에 의해 개창되었다. 사호(寺號) 타이세키지(大石寺)는 지명 오이시가하라(大石ヶ原)에서 유래한다. 또한 개기단나(開基檀那)는 이곳 후지(富士) 우에노향(上野郷)의 지두(地頭) 난조 시치로지로타이라노 토키미쓰(南條七郎次郎平時光)이다.

닛코상인께서는 고안(弘安) 5년(1282)에 대성인으로부터 일체의 부촉을 받으시고, 대성인 입멸 후에는 미노부산(身延山) 쿠온지(久遠寺)의 별당직(別當職)에 오르신다. 그러나 그 후 수년이 지나지 지두인 하기리 사네나가(波木井實長)가 민부아사리 니코(民部阿闍梨日向)의 사주를 받아 여러 가지 방법을 저지르기에 이르렀고, 스승인 닛코상인께서 재삼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닛코상인께서는 일찍이 대성인의 「지두(地頭)의 불법(不法)이 있을 때에는 나도 살지 않으리라」는 유언과 「국주(國主)가 이 법(法)을 세우시면, 후지산(富士山)에 혼몬지(本門寺)의 계단(戒壇)을 건립(建立)하여야 하느니라」는 유명(遺命)에 의해 마침내 결의하시고 종지의 근본인 본문계단의 대어본존을 비롯하여 대성인의 어회골(御灰骨)·어서(御書)·유물 등 일체의 중보(重寶)를 봉지(奉持)하시고 쇼오 2년(1289) 봄 미노부산을 떠나 대성인 재세시부터 강신자였던 난조 토키미쓰(南條時光)의 청에 의해 후지로 옮기셨다.

다음해인 쇼오 3년(1290) 타이세키지를 건립하시고 대어본존님을 삼가 안치하시고 많은 제자분들을 양성하시며, 이곳에 만대(萬代)에 걸친 불법 유포의 기초를 쌓으셨다.

봉안당(奉安堂)

Hoando①

봉안당(奉安堂)은 67세 닛켄상인(日顯上人)의 발원(發願)으로 종지 건립 750년을 경축하는 기념사업으로 건립된 본문계단의 대어본존님이 안치된 당우(堂宇)이다. 2000년 4월에 착공법요를 봉수하고, 2002년 10월에 완공되었다.

당우(堂宇) 외관은 전통적인 일본의 사원 건축양식으로 우진각 2층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지상 1층, 지하 1층의 철골구조, 폭 75미터, 안길이 116미터, 높이 55미터이다.

당내는 폭 55미터, 안길이 84미터이고 신도석은 5천명분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대어본존님이 안치된 수미단은 전체가 특수합금으로 된 금고실(金庫室)로 되어 있어 내진(耐震), 내화(耐火), 방범 면에서도 매우 높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봉안당은 여기에 모인 일련정종 승속이 항상 광선유포와 자신의 죄장소멸, 그리고 나날의 정진을 서원(誓願)하는 숭고한 영장(靈場)이다.



日蓮正宗総本山 大石寺
〒418-0116 静岡県富士宮市上条2057番地



日蓮正宗 HP

R7.3
1,000

객전(客殿)

Kyakuden(Reception Hall) ……②

1465년 9세 니치유상인(日有上人)께서 창건하셨고, 1723년, 1871년, 1948년, 1964년에 각각 재건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3월에 신축된 것이다. 내부 기본구조는 내진성(耐震性)이 우수하고 견고한 철골조로서 외장(外裝)과 당내(堂內)의 마감은 모두 목재를 사용하여 온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통적인 일본식 건축 양식이다.

폭, 안길이 모두 약 50미터, 높이 36미터의 2층 건물로서 당내는 타타미 1,112장의 큰방으로 되어있다.

객전은 총본산 내에서 가장 많은 법요가 봉수되는 건물로서, 특히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법맥을 계승하신 역대 법주상인께서 매일 아침 광선유포 기원을 하는 축인근행을 행하시는 중요한 당우(堂宇)이다.



①



②

무쓰보(六壺)

Mutsubo ……③

1290년 개산 2조 닛코상인(日興上人)께서 창건하신 타이세키지 발상(發祥)의 영역(靈域)이다.

현재의 건물은 1988년 10월 타이세키지 개창 700년 기념사업으로 건립되었다.

10칸 4면의 단층건물로서 전체가 느티나무골조로 내부는 타타미 170장 정도의 넓이다.



③



④

어영당(御影堂)

Mieido(Image Hall) ……④

1290년 개산(開山) 2조 닛코상인(日興上人)에 의해 창건되어, 1388년 6세 니치지상인(日時上人)대에 에치젠 훗쿄 카이에(越前法橋快惠)의 근작(謹作)에 의해 조립(造立)된 니치렌대성인 등신(等身)의 어영(御影)이 안치되어 있다.

현재의 건물은 1632년 아와 토쿠시마(阿波徳島)의 초대 영주 하치스카 요시시게공(蜂須賀至鎮公)의 부인인 교다이인(敬台院)의 기진에 의해 재건되었다. 1699년, 1902년, 1972년, 1990년, 2002년에 각각 개수(改修)나 수리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해체 대개수 공사가 행해져, 2013년 11월 대개수낙경대법요(大改修落慶大法要)가 봉수되었다.

폭 25미터, 안길이와 높이는 각각 23미터.

어영당은 시즈오카현(静岡縣)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⑥



⑦



⑧

삼문(三門)

Sanmon(Gate of Three Entrances) ……⑤ (표지의 사진)

1712년 25세 니치유상인(日有上人)의 발원으로 토쿠가와(徳川) 6대 장군 이에노부공(家宣公)이 후지산의 거목 70그루, 그 부인인 텐에이인(天英院)이 황금 1,200립(粒)을 기진(寄進)하여 5년의 세월을 걸러 1717년 8월에 완성되었다.

그 후 몇번의 개수(改修)를 행하였고, 68세 니치노상인(日如上人)에 의해 2015년부터 해체 대개수공사가 행해져 2021년 1월 대개수완성봉고법요(大改修完成奉告法要)가 봉수되었다.

폭 24미터, 안길이 11미터, 높이 22미터, 목조에 주홍색을 입혀서 그 규모에 있어서 토카이(東海)에서 으뜸이다.

삼문은 시즈오카현(縣)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오중탑(五重塔)

Goju-no-to(Five-storied Pagoda) ……⑥

경내를 흐르는 우루이가와(潤井川)의 동측에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높은 지대에 세워져 있는 것이 토카이도(東海道) 연선(沿線)에서 으뜸인 오중보탑(五重寶塔)이다.

26세 니치칸상인(日寛上人)께서 토쿠가와(徳川) 6대 장군의 부인 텐에이인(天英院)과 함께 기탑(起塔)의 뜻을 세워 그 기금을 남기고 그 후 5대의 법주상인님들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31세 니치인상인(日因上人)께서 제국(諸國)을 권화(勸化)하여 모으신 정재(淨財)와 빗췌 마츠야마(備中松山) 영주 이타쿠라 카쓰즈미공(板倉勝澄公)의 기진(寄進)으로 1749년에 완성했다.

68세 니치노상인(日如上人)에 의해 2015년 수복공사를 하여, 2017년 1월 수복완성법요가 봉수되었다.

세 칸 반(6.4미터) 사면으로 높이 34.3미터.

오중탑은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법상원(法祥園)

Hoshoen ……⑦

1990년 봄에 타이세키지 개창 7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렌요안(蓮葉庵) [연엽암]의 남측에 조성된 1,600여평의 광대한 정원이다. 화창한 날에는 중앙의 명경지(明鏡池)에 후지산(富士山)이 선명하게 비친다.

탑중(塔中)

Tatchu(Subtemples within the Head Temple) ……⑧

삼문(三門)으로 통하여 들어가 잠시 걸어가면 폭넓은 돌다타미의 참도(參道)에 도달한다. 그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12개 방(坊)이 중앙탑중이다. 봄에는 참도를 덮을 듯이 실벚꽃이 만개하여 참배자의 마음을 온화하게 한다.

또한 타이세키지 경내에는 중앙탑중 외에 동탑중으로 7개의 방(坊)과 서탑중으로 3개의 방(坊)이 있는데 모두 참여하는 신도의 휴게방(休憩坊)으로 쓰인다.